

국내

#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발전

1주차

이진영 교수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 01 과목 소개

이민이라고 하는 큰 틀,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민이라는 틀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보고 또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을 동포 그리고 노동력 또한 비자에 의한 다양한 요소들로서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해서 중국 동포들이 정주하게 됐고 정주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포들의 삶과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시각,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에 서로 상호 이해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까지 중국 동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 02 강의방식

강의

퀴즈

### 03 주차별 구성

1주차	국제이주와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2주차	이민정책 한국의 구조
3주차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사
4주차	국내 재외동포법제
5주차	다양한 체류 자격
6주차	중국동포 집거지
7주차	중국동포의 노동
8주차	정주와 조선족의 삶
9주차	차별과 분열
10주차	갈등과 상호 이해 모색

### 04 1주차 키워드

- 이주
- 중국동포
- 외국인 이주
- 한국 이주



# 강의



## 국제이주와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들어가기

### 1-1 이주의 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는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와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이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전 세계적인 지구화 시대에 이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주 혹은 이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각각은 영어에서의 Immigration이라는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민이라는 말, 한번 한자어로 볼까요? 한자어의 ‘이’를 보시면 ‘벼 화’자에다가 ‘많을 다’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많은 곳, 쌀이 많은 곳, 즉 먹을 곳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한다 하는 것이 이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민이라는 것은 좀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주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 계속 사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민과 이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민이라는 용어, 이주라는 용어를 같이 쓰겠습니다만 주요한 초점은 이렇게 이민과 이주가 일어난 것이 좀 더 잘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노동 이주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라는 것이 사실상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구촌 시대에 그렇다고 하겠는데요. 우리가 세계이주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고요. 이 국제기구 IOM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이 IOM의 홈페이지에 가면 전 세계적인 이주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상에 나타난 지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히 우리가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가 전 세계가 이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가. 그리고 그 이주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주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중국 동포인 조선족이 이주한다 이랬을 때 중국 동포인 조선족의 이주에 있어서의 독특한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주가 일반화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현재 2억 8천만 명 정도가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인구 중에 3.9%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중 7명 중의 1명이 이주자다 하는 점에서 이주라는 것이 21세기의 하나의 트렌드다. 그 트렌드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IOM, 국제이주기구의 사무총장이 말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이주라는 것을 우리는 해외로만 이야기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주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외 이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이주자 수가 현재 10억 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연도별로 통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주, 이민할 때는 다른 나라로만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자기의 본거지를 떠나서 도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이주라고 포함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소위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라고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개발목표라는 것은 2015년에 유엔이 전 세계의 목표로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목표에 있어서도 이주, 이민이라는 것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이민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이주기구에서는 한국 대표부도 있고요. 또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이주,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은 여기에 나온 사전들을 통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동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이주라고 하는 것이 국민 국가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조금 어렵죠? 국민 국가, 영어로 nation state. 한국에서는 민족 국가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죠. 근대적인 국가들이, 민족의, 국민의 기반 국가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modern nation state, 근대 국민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국민 국가가 그 이전의 국가랑 뭐가 다르냐. 말 그대로 국민 국가니까요, 국민이 있겠죠. 또 국경이 있습니다. 영토. 영토가 있고 그 영토는 하나의 주권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국가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국민 속에서 영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지구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영토, 경계, 이런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이 원래는 migration across national borders, 그러니까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는 것을 이민이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민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민에 대해서 국민 국가들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민 정책이다. 한 국민 국가의 정책으로서 이민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라는 것은 이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거죠. 왜 그러냐. 지구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가 경계가 없어지면서 이동이 빈번합니다. 사람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상품이 수출되고 수입되면서 상품도 이동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국경이 있나요? 막으려고 하지만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동이라고 하는, 이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화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또 근대 국민 국가 이후에 좀 더 나타난, 세계화 시대, 지구적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메가 트렌드다.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이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과 함께 점차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또 아시아에서도 동북아, 동남아, 이렇게 또 한정할 수 있고 또 한국으로도 한정할 수 있겠죠. 또는 한반도로도 한정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도 지역적으로 한정될 수가 있고 특히 이민자라고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시대인 메가 트렌드인 이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주를 예전의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층위에서 바라봄으로써 사실상 이주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한국 내 중국 동포,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 이것은 단순히 조선족들만의 이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동북아적, 중국과 한국 사이에, 또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 사회에 중국 동포인 조선족들이 이주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주의 시대, 전 지구화 시대, 특히 21세기에 이것은 하나의 일상화되어 있는 이주이고 그것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요약하고자 합니다.



## 국제이주와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들어가기

### 1-2 아시아 지역 이주

이번 시간에는 이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주라는 것이 21세기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특히 아시아에서는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매년 리포트를 냅니다.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주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을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이주기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주에 대한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주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주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현상이자 아시아에서도 독특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이주자들은 2020년에 8,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주자 2억 8,000만 명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9년과 비교해서도 약간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주라는 현상이 21세기에 있어서 주요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51명 중의 1명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나라들 중에는 동남아, 그리고 남아시아, 이 두 곳이 사실상 이주민들의 출발지였습니다. 즉 남아시아라는 것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곳을 의미하죠. 이런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36%와 28%를 차지해서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두 곳이 이주민들의 출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똑같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죠. 이쪽 지역에서 이주민들도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이 대상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출신들이 어떤 나라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소한 곳은 어디인가, 증가한 곳은 어디인가, 어느 국가 출신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가, 어느 지역 출신이 어느 지역 혹은 국가로 이주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주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동북아라든지 태평양 지역은 조금 감소했구요. 반면에 동남아라든지 서남아, 서아시아 및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었고요. 한국과 일본 역시 이동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의 증가가 없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즉 서남아 지역이라든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가 폭도 7.8%, 6.1%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국가 출신들이 이주를 많이 하나 하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 출신들은 여전히 이주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고로 많이 이주를 한 곳은 인도 지역입니다. 1,780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중국도 1,16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두 나라는 15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740만 명이 이동을 했고요. 파키스탄이 630만.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609만. 또 우리가 난민 문제로 많이 이야기하는 아프가니스탄은 5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460만 명, 미얀마도 370만 명, 베트남 340만 명, 네팔 260만 명.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시아 각국의 이동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이동한 우리 동포인 중국 동포 조선족의 이동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아시아에서 이동도 각 국가마다 독특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한 대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난민으로서의 이주가 많을 것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난민성 이주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곳은 노동 이주 성격이 많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노동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이주는 물론 전 세계로 합시다만 특히 중동 지역으로의 이주가 노동 이주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국가들은 각 국가에 맞게끔 이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의 이주도 중국의 이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주 특성에 맞춰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요약문도 있게 되는데요. 이 8,200만 명이나 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얘기한 대로 지금 42%가 보면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는 440만 명 정도가 국외로, 중국인은 400만 명 정도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많이 이동을 한 지역으로 본다면 방글라데시, 인디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디아, 파키스탄 같은 곳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하고 다른 국가로도 이동합니다만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민이라기보다는 이동 또는 이주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범위에서의 이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라는 것은 원하는 범위의 이주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상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이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겠지만 가령 난민들이 목적지가 영국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람이고요. 그와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노동 이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주민들의 대다수는 젊은 사람으로서 소위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좀 더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 간호사들, 또는 중동 지역에 파견됐던 노동자들,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한국 계신 분들은 금세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한국은 지금 노동 이주의 형태가 변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는 이 노동 이주가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난민과 같은 humanitarian protection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후 난민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diaspora relations,

그러니까 재외 동포들과 관련된 그러한 이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이주. 이것이 아시아에서도 역시 메가 트렌드로 있고 아시아의 지역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만 결국은 노동 이주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것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 국제이주와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들어가기

### 1-3 한국으로의 외국인 이주

이번 시간에는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외국인 이주와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먼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 물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1997년에는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0만 명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200만 명이 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2년 이후 3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6%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으로의 외국인 이주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인구 중에서 5%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인종 사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에서의 multicultural society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다양한 복지까지 모든 면이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의 한국 이주는 굉장히 쟁점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중국 동포들의 한국 이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기사를 한번 보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민 정책에서 조선족들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라는 것은 중국 동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배경에는 일반 이민자들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동포인 중국 동포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좀 더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쟁점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족에 기반한 차별적인 요소가 지금 나오고 있죠. 또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혐오적 차별적인 것도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16년도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 문제, 이주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주 문제 중에서도 중국 동포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2021년의 한 기사를 보면 한국, 난민 받아들여야 되나? 이민 국가로 변화해야 되나? 우리가 2016년에 이민 정책, 이민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민 국가로 진짜 변화해야 되는가. OECD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난민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10월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한국 공관이라든지 코이카 같은 여러 기관들에서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 때 이들은 그냥 일반 이주민이나 아니면 난민이나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난민이면 이제 또 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협약도 있고 그런 제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로자라는 명칭을 붙여서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 지역 외국인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공로자 형태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아프간에서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 차원의 이민 문제, 이주 문제, 난민 문제에서 한국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쟁점 사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민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점이 또한 됐다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민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을 떠나서 이민에 있어서, 이주에 있어서의 다양한 성격들, 노동 이민, 가족 이민, 난민, 동포, 환경 이민, 많은 이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구가 줄어들게 있죠. 또 출생률이, 출산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한국이. 일본과도 비슷하게 굉장히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폐쇄적입니다. 인구의 0.1%만 외국인 이민자인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역시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 바라본 쟁점입니다. 이민자 입장에서 한국이 매력적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또한 한국이 이민자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또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가령 투자 이민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부동산 같은 것으로 5억을 투자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하겠다. 그렇지만 한국 내에서의 반중 정서와 함께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배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연계가 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별로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거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많이 제한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민이라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저임금, 그리고 3D의 주로 단순 노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고급 기술자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인도적 차원에서 이미 와 있는 이민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양한 이민들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들에 대해서 한국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과 관련해서 이민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해서도 이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보면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1명도 낳지 않는다. 결국은 1명이 1명도 낳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2명이 1명도 낳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응책으로 280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80조라는 돈에서 일부라도 이민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날 이민 정책을 수립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자 하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의 이민이라는 쟁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쟁점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한국의 인구, 저출산, 미래, 정치, 국제정치, 상호연관된 세계, 다양한 쟁점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중국 동포를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쟁점적인 사항이고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국제이주와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들어가기

### 1-4 통계로 보는 외국인 이주

이번 시간에는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 이것을 통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리집이라고 할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출입국통계의 다양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시면 여기에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추세도 알 수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 때 변화한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어떤 곳에 초점을 두는가 하는 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의 외국인 이주라는 것이 주로 국적, 그리고 비자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괄적으로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비자 형태로 오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략 5% 아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류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면 OECD에서는 선진국 기구죠.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 서비스도 변화시켜야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5% 이내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장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랑 장기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단기라는 것은 90일을 의미합니다. 90일 이상이 되면 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0일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행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순 여행이랑 단기 체류랑은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에는 다양하겠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교육일 수도 있고, 유학과 같은. 혹은 가족 결합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장기와 단기에 있어서 비율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족 장기 거주자들이 점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고 한국의 주민이 되고 혹은 한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변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우리가 보는 통계는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베트남입니다. 조금 어떤 분들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베트남은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가령 노동 이주로 온 것일까, 또는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결혼 이주로서 우리가 베트남 신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결혼 이주로 온 것인가. 어쨌든 지금 한국 내에 있어서 이렇게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온다는 것은 그 특정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체 중국인인 것인지, 중국에서도 중국 동포가 어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 2017년에 1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17만 명 정도. 그다음에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우리 동포인 고려인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소련 지역에 있었던 동포들의 후예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히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방문취업비자라고 하는 H-2 비자를 주고 있고요.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이주자들 중에서는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민족일 수도 있겠지만 고려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미 동포라고 얘기하는 동포들로서 회귀 이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65세가 넘으면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고향을 잊지 못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젊은 층들은 한류로 인해서 최근에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국과 베트남은 좀 더 노동 이주 성격이 강합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의 노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인 중국 역시 노동 이주, 그리고 동포들인 중국 동포, 결혼 이주, 이런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의 이주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더 노동적 측면, 또 고급 노동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의 현황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만 이 유학생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형편입니다.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거의 증감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 인력은 일정한 비율인데 왜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와 있을까. 특히 1, 2, 3위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태국이 노동 이주가 많다고 했는데 그 노동은 뭘까. 결국은 단순 노무 인력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 노무 인력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어떠한 것은 또 다른 쟁점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인들의 이주는 전문 인력보다는 단순 노무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단순 기능 인력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통계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노동 비자가 아닌 비자로 들어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F-4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자를 통해서 노무에 종사할 수 있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결국은 단순 기능 인력의 비자로써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써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이민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결혼을 하러 와서 또 한국에서 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단순한 분야 또는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 이주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통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결혼 이주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이주자 비율은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주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라는 것은 우리가 영주, 영원히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적, 즉 시민권만 한국 국적자가 아닌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적은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영주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제도가 들어온 다음에 대략 10만 명 이상이 지금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주권자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는 사실상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코로나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 이주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제도적인 특성에 의해서 다양한 비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 이주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1위 이민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포인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에 있어서 동포라는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국제이주와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들어가기

### 1-5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이번 시간에는 한국 내 동포 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내로 이주한 외국인들, 그중에서도 동포들이 어떻게 이주를 해서 동포들의 사회를 형성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포, 동포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재외, 외국에 있는 동포라는 뜻이죠. 결국 해외에 있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포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에서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재외동포. 말이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가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국적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한국 국적을 안 가진 사람,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이다, 한국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적 동포다. 한민족의 후손으로서의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구를 봤을 때 재외동포 인구를 730만, 75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재외국민이 220만에서 250만 명 정도. 그리고 외국적 동포가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계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재외국민은 220만이건 250만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재외 선거권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북한 사람들도 우리 국민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과 한국은 별도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우리가 탈북자, 탈북주민, 탈북 이탈민, 여러 가지 새터민, 다양한 표현으로 부릅니다만 바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외국 국적 동포는 한민족의 후손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50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리고 옛날 소련 지역인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나라에 있는 고려인들, 또 미국의 재미동포 중에서 시민권자들, 이런 분들. 또 입양아로서 가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외국적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외동포인데 외국에 있는 동포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환 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회귀 이주다.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귀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동포의 이주이기도 하지만 이민, 이주 문제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한국 이주의 일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외국인들의 이주와 연결돼서 진행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주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동포들의 이주는 추가적인 쟁점 사항들이 있겠죠. 왜? 우리 동포니까요. 그러면서 법, 제도, 행정,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한국 이주, 시기별로 다르지만 대략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200만 명 중에 사실은 절반이 되는 100만 명이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가 중국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주, 이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생각만 하는 거랑은 다르게 동포들은 또 외국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이 회귀 이주한 동포들 중에 대다수는 중국 동포인 조선족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국민이라고 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 체계, 관행, 인식,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조선족은 중국인 아니야?” 그러면 조선족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동포들이라는 것은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낸 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증가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만 외국인 시대를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통계를 보면 200만 좋은데 그 200만 중에 절반인 100만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중국인이 100만인데 거기서도 또 공식적 통계상으로도 한국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계는 조선족 또는 중국 동포를 의미합니다. 한국계 중국인이죠. 그러니까 2016년 100만일 때도 63만 명, 2019년 중국인이 110만 명일 때도 70만 명. 그러니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동포가 중국인 인구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중국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니까 이 통계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80만 중국 동포가 한국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0만이라고 하니까 이 외국적 동포들 중에서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고려인들의 인구는 점차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만 명이나 되는 중국 동포.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의 인구는 2010년, 2020년 대략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공식적 통계가요, 중국에서. 그러면 180만 명 중에 8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80만 명이. 그러면 180만 명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영유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소위 경제 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 동포 조선족 인구의 60%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 그 역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의 역사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포들은 전국에 동포들의 집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인들 역시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동포는 중국 동포대로, 고려인 동포들은 고려인 동포대로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끔 노동 시장이라든지 생활의 편의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점이라든지 혹은 산업 단지 근처에 동포 타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동포 타운은 우리가 서울의 서남지구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구로구의 가리봉동이라든지 영등포구의 대림동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중국 동포 집중촌이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중국 동포들이 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광진구의 자양동, 건대입구역 쪽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시흥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지도는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산 같은 곳을 얘기하고 있죠.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에 하나의 집중 타운을 만들어서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계상으로는 동포들의 거소신고, 이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소신고라는 게 뭘까. 혹시 외국에 살아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라든지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포들도 본인들이 있는 지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비자, 사증이라고 하는 그런 체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동포는 지금 다양한 사증, 다양한 비자로 와 있습니다. 보시면 재외동포 비자라는 게 있고요. 방문취업 비자라는 게 있고 영주권, 그리고 방문 동거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니까 당연히 재외동포 비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외동포 비자가 뭐지?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불행하게도 재외동포 비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중국 동포와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 비자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2007년부터 방문취업비자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취업비자는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단순 노무에 취업하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회귀 동포들의 사증, 비자 체류 자격은 동포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곳의 동포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비자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고려인 같은 경우는 방문취업비자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통계상 한국 내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해서 200만 명을 초과했지만 이 중에 외국적 동포는 100만 명이고 주로 조선족은 이 중에서 80%인 80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다릅니다만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가 대략 44%,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40% 정도, 영주권이 10% 정도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체류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중국 동포들의 생활, 또 한국에서의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단순 노무에 취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서비스업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만 식당 같은 데 보면 우리 동포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위반해서 취업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방문취업은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없고 단순 노무에만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사증이나, 방문취업 사증이나, 이것에 따라서 동포들 사이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때문에 외국인 거소신고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낮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거소 신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중국 동포들이 취업 사증이라 다르게 취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소신고를 별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귀 중국 동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동포들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족 1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재일 동포들은 대부분이 한국 국적자죠. 재외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국적을 재취득하신 분들, 회복하신 분들도 들어가 있지 않죠, 국민이니까. 탈북민 당연히 북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해외 입양인도 이것이 민족적인 것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해외 동포가 500만이 외국 국적 동포로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500만 중의 100만이 해외가 아닌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이 이제는 이민을 보내는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됐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중에서 동포들이 절반을 차지해서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 국제이주와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들어가기

### 1-6

### 통계로 보는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동포 인지하기

이번 시간에는 통계의 도움을 받아서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 동포들, 동포들이 해외에 있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귀환 이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회귀 이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국 국적 동포들이 어떻게 이주를 하고 있는가 통계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시면 2017년부터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됐을 때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2017년 이전에 이미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입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중반쯤에는 한국으로의 동포들의 이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다. 안정과 완비된 기간이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동포 이주의 시작과 함께 20여 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 이주와 함께 영주하는 이주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미 180만 중국 조선족 중에 80만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점에서 우리가 사실상 동포들의 한국 이주라고 하는 것을 중국 동포 중심이지만 이주에 있어서의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적별로 본다면 당연히 중국 동포, 우리가 조선족이라고도 얘기하고 한국계 중국인이라고도 얘기하는 중국 동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인 같은 경우는 구소련 지역에 살던 우리 민족들을 얘기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 공화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이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각 국가별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혹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른 공화국들로 이주를 또 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이라고 우리가 범주화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우리 동포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국가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는 고려인이라고 별도로 규정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재외동포비자를 받고 옵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일 동포의 일본 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 국적 동포 현황을 보면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미국, 그리고 고려인들의 출신국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중국 동포와 고려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그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출신에게는 재외동포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 카자흐스탄은 방문취업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출입국이 용이하기 때문에 러시아 출신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에서는 노후에 고향에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색이 반영되기도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동포와 고려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동포는 감소한 듯이 보입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 동포는 왜 증가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출신들에게 F-4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다양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가족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입국이라는 것은 이민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표는 연도별 중국 동포 귀화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선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적은 500명 내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기간인 2008년 이때쯤 되면 그 숫자가 16,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약 10만 명 정도가 중국 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이렇게 중국 동포처럼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의 시민권을 얻었던 분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독립운동자의 후손들에게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의 대표적인 것은 소위 결혼 이민에 따른 귀화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 배우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먼저 간이 귀화라는 것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결혼 이민자의 대다수가 동남아 출신입니다만 초기에는 중국 동포들도 많았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 중에서도 결혼 이민으로 해서 귀화를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동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취득하든지 결혼 이민자로서 취득하든지 혹은 동포들 중에서 특정한 그룹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든지 회복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세레머니라고 할까요? 의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자 20만 명 기념, 그러니까 우리가 귀화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0만 명이 됐는데 그중에서 중국을 동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외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증서를 전달하는 그러한 법무부의 행사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고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애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죠. 또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 등으로 주로 남한 출신들이 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국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적을 누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국적 판정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주 귀국하신 분들에게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21년도의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접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국 국적을 위해서 해외 입양인들에게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미혼모일 경우도 있고요. 해외로 많이 입양을 시켰습니다. 참으로 한국에게는 부끄러운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로 간 입양인들은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거주 동포다, 그러니까 국내로 온 외국인들 중에서 동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출입국 통계상으로도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재외동포비자, 방문취업비자, 또는 가족과 같이 동거하는 비자, 다양한 비자들. 그리고 귀화에 있어서도 국적에 있어서도 독립운동, 우리가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에게는 또 국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복잡한 체류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체류 형태에 의해서 또 이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절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봤듯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메가 트렌드로서의 이주라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도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이동이라는 것도 활발했고 그 대상지 중의 하나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중국 동포라는 동포 정책에 의해서 이민 정책에 의해서 중국 동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라고 하는 21세기 현상이 같이 맞물린 것이고 한국만의 독특한 재외동포라는, 동포라는 그러한 관점이 이민 정책에 반영돼서 이렇게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100만 명에 이르는 사회를 이루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동포 사회,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큰 거시적인 변화가 미시적인 변화까지 연결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중국 동포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 Lecture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1-1 The Age of Migration

Hello, everyone. I am Professor Jean Young Lee,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Inha University.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migration of Korean-Chinese people to Korea.

First, let's take a look at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and look at how migration is happening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e use the terms "migration" or "immigration" in some places and "movement" in others. Each of them appears in the translation of the term "immigration" in English. Shall we look at the word "immigration" in Chinese characters that we often use? If you look at the Chinese character '移 (lee)', there's a '多 (much, da)' attached to '禾 (grain, hwa)'. So, it means a place with a lot of grain, a place with a lot of rice, that is, a place with a lot of food. The act of people moving there is known as "immigration." After all, immigration is a phenomenon of moving beyond boundaries to eat better and live better.

Recently, however, a lot of people are also using the expression "migration." Immigration is about moving to a specific area and continuing to live there. However, nowadays,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are constantly moving without settling in one place. So, we use the expressions "immigration" and "migration" a lot in Korean. Anyway, we'll use the terms "immigration" and "migration" together. The main focus is that immigration and migration take pla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 can say that they have strong characteristics of labor migration, in a way.

However, this migration is actually a global phenomenon.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global age. There is an organization calle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Th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abbreviated as IOM in English. If you go to the IOM's website, you can find global migration trends. Therefore, the circles on the map on the homepage indicate how many people have migrated. We could say that starting from the late 20th century, the 21st century has been an era of global migration. How many people migrate and where are those migrants going? We can find out these things through this homepage.



However, what's important is that this migration is a global phenomenon. When we say that Joseonjok immigrated to Korea, there may be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 migration of Joseonjok. Migration is basically becoming commonplace around the world now. That's the point. About 280 million of the world's population are currently migrating. This accounts for 3.9% of the population, and the migration of so many people is unprecedented in history. Therefore, one in seven people in the world is a migrant. Migration is a trend in the 21st century. That trend can also be called a mega trend.

This is wha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OM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said. However, migration is not only occurring abroad; it is occurring domestically as well. And, the number of migrants worldwide,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s now reaching 1 billion. Of course, migration statistics may vary slightly by year. One in seven people on the planet is a migran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n Korea, when we talk about immigration or migration, we only think about going to another country, but in fact, there are cases where you leave your home base and move to a city or other region. In this case, it should be included as migration, but basically, we're talking a lot about moving to a different country. When we talk about migration, we refer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ich is abbreviated as SD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s what the United Nations announced in 2015 as a global goal.

However, migration and immigration appear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this goal. That is why migration and immigration are crucial phenomena. Current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as a Korean delegation and runs a library. The term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in the future, migration and immigration, are also used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s dictionary. You can learn more about it. When we talk about migration, the point is, from where to where since it's about movement.



However, what's important is that migration is what happens in the system of a nation-state. It's a bit complicated, right? Nation-state, the "nation state" in English. In Korean, it's also translated as nation-state.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at is, after the 18th century. Modern countries, nations, and people-based countries have emerged. In that respect, it is called the modern nation-state. Howeve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odern nation-states and previous ones? It's literally a nation-state, so there must be a people. There's also a border. Territory. It has territory, and that territory is guaranteed internationally by one sovereignty. Therefore, a nation-state is one in which individual countries have sovereignty. It is a country that is formed within its territory and among its people.

Now, as globalization takes place, these territories, these boundaries, these things are starting to fade. Immigration was originally about migration across national borders. Moving beyond the boundaries of a nation-state was called immigration. That's what I was talking about when we just learned the concept of immigration. Nation-states have policies on immigration. Those countries can either accept migrants (immigration) or send migrants (emigration). It is an immigration policy. I'm talking about immigration policy as a policy of a nation-state.

However, migration is a broader concept than this. Why? It's the age of globalization. As the boundaries around the world become blurred, the movement becomes more frequent. It's not just people moving. Goods also move as they are imported and exported. Also, do viruses like Coronavirus have a border? We're trying to stop it, but there's no border. So, in fact, the movement known as migration is a characteristic of the globalization era. That's why when we talk about migration, it's a global phenomenon. It's also a phenomenon that has appeared more after the modern nation-stat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global age. This is the mega trend. It's being done on a huge scale. At the same time, looking at migr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Along with this, we can gradually narrow it down and limit it to Asia, and in Asia, we can limit it to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and we can also limit it to Korea. It can even be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or regionally in Korea. It may also focus specifically on individuals who are immigrants.

Therefore, in the era of migration, which is a mega trend in the global community, it's not like we're seeing migration as just the movement of peopl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e're looking at it from various levels. The idea is that by looking at it from that level, the nature of migration becomes clear.



The process of forming the society of Korean-Chinese people living in Korea, which we will talk about in class, is not just about the migration of Joseonjok. The migration of Korean-Chinese people is taking place globally, at the regional level in Northeast Asia, between China and Korea, and also within Korea. I'm telling you that we have to look at the migration of Korean-Chinese people on various levels. Anyway, in the age of migr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especially in the 21st century, this is a routine migration, and Korea is no exception. I'd like to summarize by saying this.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1-2 Migration in Asia

In this part, we will learn about migration, especially in Asia. Migration is a mega trend in the 21st century. It's a global phenomenon. Then, what about in Asia?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publishes an annual report. Here, various phenomena of mi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produced as reports. You can see the 2020 report now. Likewise, if you look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s website, you can find data from the global scope of migration. What is the phenomenon of migration around the world when we look at this as a reference? In fact, in a way, migration is a phenomenon all over the world and also a unique phenomenon in Asia.

In Asia, the number of migrants has now reached 83 million as of 2020. Therefore, it accounts for about 30 percent of the 280 million migrants in the world. On top of that, you can also see a slight increase compared to 2019. We've seen this increase despite the outbreak of COVID-19. That means migration is a major and common phenomenon in the 21st century.

One in 51 people in the Asia Pacific region has moved to another country. Among the areas that people migrated from,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these two were actually the starting points for migrants. South Asia means India, Pakistan, Sri Lanka, and Bangladesh. People who migrated from countries like these and people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like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ccounted for 36% and 28%. In fact, in the Asia-Pacific region, you can see that these two places are the starting points for migrants.

Also, since it decreased due to COVID-19, we need to think about these statistics. Still, the overall trend of increase is the same.

Of course,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are included. Migrants also make up about 18% of the population in this area. Mainly, China could be the target.



If we look at this data, we can see which countries and regions people are migrating to. You can also see where it decreased, where it increased, and from which countries a lot of people migrated. These stats tell you where they come from and where they're going. As a whole, migration is still increas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right now, as I said earlier.

However,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by region. North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ave decreased a little. On the other hand, Southeast Asia, Southwest Asia, West Asia, and South Asia have increased. Why? Let's think about it.

In the case of Northeast Asia, they have implemented a stringent policy against COVID-19. China in particular has maintained a zero-COVID-19 policy. Korea and Japan have also implemented policies to minimize movement. As a result, the number of immigrants did not increase but somewhat decreased.

However, despite COVID-19, migration increased in the Middle East, Southwest Asia,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What's more, there are so many immigrants that the increase is 7.8% and 6.1%.

Secondly, which countries emigrate the most? As I said earlier, it decreased in Northeast Asia. Still, you can see that people from China still migrated a lot. Of course, the largest migration occurred in India. 17.8 million people moved elsewhere. 11.6 million Chinese also moved elsewhere. Since these two countries have a population of 1.5 billion people, in fact, if we look at the ratio, we might think it's not that much.

7.4 million people from Bangladesh, a South Asian country, have migrated. 6.3 million Pakistanis and 6.09 million Filipinos, an East Asian country, emigrated. In Afghanistan, where we talk a lot about refugees, 5.8 million people moved. Indonesia has 4.6 million, Myanmar 3.7 million, Vietnam 3.4 million, and Nepal 2.6 million.



What we're trying to learn now is not about the migration of Asian countries. We're talking about the migration of our compatriots, Korean-Chinese people, Joseonjok. However, now in Asia, migration also has unique characteristics in each country. As I said, in the case of Afghanistan, there will probably be a lot of migration as refugees. So is the case of Myanmar; there's a lot of refugee migration because of political instability. On the other hand, places like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have a lot of labor migration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labor migration is taking place worldwide.

Bangladeshis and Pakistanis migrate all over the world, but, in particular,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is very much highlighted by labor migration. Therefore, each country is migrating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Migration from China also has Chinese characteristics. We could say that our Chinese compatriots mov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This report also has a summary. Where did these 82 million Asian migrants go? As I said, if you look at 42 % now, they have moved from Asia to other countries. About 4.4 million Indian people are out of the country, nearly 4 million Chinese, and we can see that Australians have moved a lot. That's why people are moving around in various ways. Currently, the most mobile regions are Bangladesh, India, Afghanistan, Iran, Afghanistan, Pakistan, India, and Pakistan.

These countries are such cases, and they move to other regions and other countries. There are also many people who stay in the area. That's why people move to another country in the area. So, if we look at it in terms of migration or movement, rather than immigration, you can see that there's a lot of migration going on in this range.

This migration means that there's a regional range of migration that a migrant wants, but it's actually moving by the phenomenon, by condition. What does that mean? Essentially, there are certain places that migrants want to go to. For example, the UK is often a chosen destination for refugees but it is only a wish. Unlike that, they can move to another area,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fore, labor migration is a crucial factor. The reason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migrants are young and so-called economically active people who can work. That accounts for a lot. That's why they migrate: to earn a better living and get more economic benefits.



In the case of Korea, miners and nurses who were historically dispatched to Germany, or the workers who were sent to the Middle East...If you think about these, I think people in Korea will understand it soon. This phenomenon has changed the form of labor migration in Korea, but this labor migration is a global phenomenon, especially in Asia. It's a significant phenomenon that is still happening. Of course, shall we call it humanitarian protection, like refugees? There could be problems like that. There could also be parts like climate refugees or, like we're doing right now, diaspora relations.

There may be such immigration related to overseas Koreans. Migration on a global scale. This is also a mega trend in Asia,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in Asia. In the e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igration are the most important and this has continued to increase despite COVID-19. We can sum it up like that.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1-3 Foreign Migration to Korea

In this session, we will learn about the migration of foreigners to Korea. Let me first talk specifically about the issues related to foreign migration to Korea. The migration of foreigners to Korea. Of course,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was 300,000 in 1997. In 2020, it's 2.3 million, which is actually an increase of 2 million. What's more, since 2022, we're expecting about 3 million people. This is about 6% of Korea's total population. We actually predicted it like that. However, foreign migration to Korea has been slowing down for a while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But what's important is that foreign migration in Korea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20 year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 group of advanced countries, defines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country where foreigners account for more than 5% of the population of the entire country, and that includes Korea. It's a multi-ethnic society. It's translated as a multicultural society in English. It's thought that it will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is way.

How about Korea? Korea was very proud of being a homogeneous state. However, if it's more than 5%, it becomes a multicultural, multiracial, multi-ethnic society. That will change many aspects of Korean society. Not only in relation to labor but also family relationships and various welfare for society. It means that every aspect of it is changeable. Therefore, the migration of foreigners to Korea is very controversial. This can be said to be the case not only in Korean society but also in all countries.

Shall we read the article? We're talking about the migration of our Chinese compatriots to Korea. Looking at the 2016 article, Kim Moo-sung, the representative of the Saenuri Party, regarding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we now have to make an immigration policy, and with it, we have to accept a large number of Joseonjok. That's what he said. Aren't these Joseonjoks Chinese compatriots? In particular, in this context, he thought that the immigrants were racially and ethnically different. However, since our compatriots, Joseonjok, are our people, the culture shock caused by immigration will be reduced. This is the background.



Of course, it's very controversial to say this, as it is now. The reason is that ethnic-based discriminatory elements are emerging now. It could also be said that hateful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races and other ethnic groups has emerged.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2016, as part of measures against the low birth rate, talk of immigration and migration began to emerge in Korean society. Among the migration issues, he openly talked about accepting Chinese compatriots.

Shall we go back to 2021? If we look at an article from 2021, should Korea accept refugees? Should Korea change to an immigrant country? We were talking about immigration policy, an immigration country in 2016. Should Korea really change to an immigrant country now? Should Korea change, as the OECD said? However, here comes the refugee problem.

Afghanistan was occupied by the Taliban in October 2021. In the meantime, people who worked for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diplomatic missions, and KOICA, and their families, were acce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y could be at risk. However, it became a big issue when they came, whether they were just regular migrants or refugees. Saying that there ar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estrictions for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them as "special contributors" and accepted them on a large scale for humanitarian purposes. Therefore, in a way, this considers people in Afghanistan as special contributors, but we know that there have been massive numbers of refugees in Afghanistan.

After all, Korea is never free from immigration, migration, and refugee issues at the global level. It went into the issue of how to solve this problem. In a way, we're going to be able to understand a lot of different factors of immigration. It's time to take a serious look. Simply agree or disagree on immigration, or be for or against accepting refugees. Apart from those, for immigration, there are various factors: labor, family, refugees, compatriots, environmental, etc., and this is an opportunity for Korean society to think about all those things.

Since 2020, we have been discussing immigration issues in various ways. Especially in Korea, we have a shrinking population. Its birth rate, or also known as fertility rate is the lowest in the world. Like Japan, it has a very low birth rate and is also closed when it comes to immigration. Japan has only 0.1% of its population as foreign immigrants, and it also emphasizes a single nation. However, this is an issue from the Korea's perspective. Whether Korea is attra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nts is another thing. Also, can Korea attract immigrants in the direction it wants? This is a different issue.



So far, Korea has created investment immigration. For example, if an immigrant invests 500 million won in real estate or something on Jeju Island, they can immigrate to Korea. However, with anti-China sentiment in Korea, high-altitude missiles called THAAD were deployed. Relations with China were damaged, and as a result, not many Chinese people came. That means that investment and investment immigration is not going smoothly. Movement has been restricted a lot in this situation due to COVID-19. As a result, immigration has become difficult.

What should we do in this situation since the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What do we need? What do we need, blue-collar workers for the low-wage 3Ds jobs, or advanced technicians? Or should we allow immigrant workers to bring their families for humanitarian reasons? There are issues with various immigrants. Korea is thinking about those problems.

We are talking a lot about immigration with the birth rate.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total fertility rate is, in a way, the equivalent of not a single woman giving birth. In the end, one person doesn't give birth to one person, so the population actually decreases. If a couple gets married, it means that the two people don't have a single child. As a result,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re inevitabl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responding to low birth rates for 15 years. From 2006 to 2021, they allocated a huge budget of 280 trillion won. Nevertheless, the low birth rate problem still needs to be resolved. Therefore, it would be nice to use some of that 280 trillion for immigration-related expenses.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hinking about i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 immigration policy on December 28, 2022, and they came to the decision that we should respond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We're talking about immigration in Korea, but this issue of immigration policy is not just a matter of labor. Korea's population, low birth rate, the future,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the interconnected world, and various issues are involved. In this scenario, accepting Chinese compatriots as part of the immigration policy is also a very controversial issue that is closely related to politics.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1-4 Foreign Migration by Statistics

In this session, let's look at the migration of foreigners to Korea in statistic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 Korea Immigration Service dedicated to foreigners coming to Korea. It provides statistics here, and these statistics are accessible to everyone. Should I call it Nurijib? If you look at the homepage, you can see various types of immigration statistics. If you look specifically at the statistics of foreigners staying here, you can find out about the migration of foreigners to Korea. Of course, you can see the overall trend. You can also learn about the variables that changed during the COVID-19 era.

In this session, we'll talk about what we usually focus on. Immigration of foreigners to Korea mainly depends on nationality and visa type, so I would like to take a general and statistical look at it. We are mainly talking about the migration of Chinese compatriots to Korea. In this regard, where the vast majority of people come from, and with what kind of visa they enter are what I want to talk about.

We can first see the status of foreigners staying compared to the population by year. These are statistics from 2016 to 2021. If we look at it, it's coming out roughly below 5%. If the number of these foreigners staying exceeds 5%, the OECD, an organization of advanced countries, defines it as a multicultural society and a multi-ethnic society. If Korea becomes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the OECD recommends that administrative services be changed accordingly.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it is still below 5% anyway. I can say this.

Also, there is a part about foreigners who stay short and long-term by year. If we distinguish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the former means 90 days of staying. If it's more than 90 days, it becomes long-term. Those 90 days may include travel, as you know. We distinguish between a simple trip and a short stay. There are many kinds of visas for those staying long term. According to the type of visa for long-term stays, it could be education, like studying abroad, or it could be a family reunion. It could be labor. It could be various things. However, what matters is the ratio of the two.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 of long-term residents is gradually increasing. That means that they will continue to stay in Korea, and it means they will become a resident of Korea or a citizen of Korea. That's how much change there is now.

The following statistics are the status of foreigners staying by major nationality. That is, it's about which country people come from the most. As you can see, the overwhelming majority is China. Next is Vietnam. Some people might think it's unexpected. Why Vietnam? We could look at it, for example, as the result of labor migration, or as marriage migrants forming multicultural families. We talk a lot about Vietnamese brides. Do Vietnamese people come here for that kind of marriage migration? Anyway, in Korea right now, we have China, Vietnam, and then,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se countries make up the majority. Therefore, coming from a specific region means that migration happens in relation to that particular area. Therefore, in the case of China, information such as whether all of the migrants are Chinese and what percentage of them are ethnic Chinese is important.

Looking at it now, from China there were about 1 million in 2017 and from Vietnam about 170,000. Next are Thailand, the USA, and Uzbekistan. However, there are compatriots in Uzbekistan that we call Koryoin, descendants of compatriots who were once in the Soviet Union. They are given a special visa, which is H-2, the Work and Visit visa. As a result, the migration of Koryoin from Uzbekistan to Korea is increasing. Therefore, of course, among the immigrants from Uzbekistan, it could be the different ethnic groups in Uzbekistan, Koryoin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The same goes for the United States. For compatriots, known as Korean-Americans, it's referred to as "return immigration" because they're coming back. They can become US citizens, and those over 65 can keep their other citizenship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came to Korea because they couldn't forget their hometown.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young people, thanks to the Korean Wav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hailand and Vietnam, on the other hand, have more labor migration characteristics. Vietnam and Thailand are significant parts of Korea's labor force. They're also an essential part of marriage immigration. China, which ranks first, also has a lot of labor migration, compatriots in China, marriage migration, and so on. It has an overwhelming majority. Therefore, there are various types of migration in terms of migration to Korea, as I just said.



On the other hand, let's look a little more at the side of work, the higher level of work.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it's inconsistent. Even among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the proportion of Chinese students is overwhelmingly high. Professional personnel is also maintained with little increase or decrease. If so, why do so many foreigners come in when we have a consistent percentage of professionals? In particular, China, Vietnam, and Thailand, which rank first, second, and third, have a lot of labor migration, but what kind of labor? Essentially, you can see that a lot of blue-collar workers have come in. How this blue-collar labor force contributes to the Korean economy is another issue. Anyway, when we look at the migration of foreigners in Korea, we can see that it centers on blue-collar labor rather than professional labor. Nevertheless, the number of blue-collar workers by year appears to be decreasing, especially due to the pandemic.

However, this is also a statistical trap. What I mean is that many people come in and work on visas that do not allow them to work. The representative one is a visa for overseas Koreans. This visa for overseas Koreans is called F-4, an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work, and the scope has been expanded. Basically, not just in terms of those on simple functional laborer visas but also in terms of those on other visas,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blue-collar labor is increasing.

Likewise, marriage immigrants are on the rise. However, these marriage immigrants come to get married, and as a result, the birth rate increases, but most of them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This economic activity is probably in simple fields or the service industry. They're likely to do a lot of that kind of work. As a result, the amount of labor migration isn't represented accurately in the statistics. It appears different if we look at it from the aspect of marriage immigrants, and this percentage of marriage immigrants is still increasing.

Let's also look at what's called permanent residency. A permanent resident is one who settles down and lives in a place forever. Without obtaining nationality or citizenship,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live in Korea. It can be seen in that way. Of course, the nationality can be Chinese, Japanese, or others. As you can see, permanent residents are constantly increasing in number. Since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came in, about 100,000 people have now acquired permanent residency.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 of permanent residents is now increasing.

Therefore, according to statistics, the migration of foreigners to Korea has actually increased despite COVID-19. It has temporarily slowed down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and it is mainly focused on labor migration.



However, due to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 it is conducted in various forms of visas. In some cases, we could say that the nature of this labor migration is unclear. Especially in the case of China, the number one immigrant country, as Joseonjok is included, I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triots are also significant factors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1-5 Korean-Chinese Immigration to Korea

I would like to discuss forming a compatriot society in Korea in this session. Of all the foreigners who migrated to Korea, we are going to focus mainly on compatriots and how they migrated. We'll also find out how they formed a compatriot society.

We're talking about compatriots. In Korea, officially, we call them overseas Koreans. That means people living abroad, or compatriots who are living overseas. After all, they are overseas Koreans staying abroad but are in Korea now. Therefore, there's a contradiction in what we say. Overseas Koreans in Korea. That's weird.

Anyway, we divide overseas Koreans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y in Korea. Those who have Korean nationality and those who do not. The latter have foreign nationality. That's why people with Korean nationality are overseas Koreans; they're Koreans in foreig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people with foreign nationality are foreign compatriots. We call them foreign compatriots because they are descendants of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the overseas Korean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between 7.3 and 7.5 million. In general, there are 2.2 to 2.5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it'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5 million foreign compatriots. It's complicated, to be honest. Then how can we estimate this statistically? Although this is an estimate, 2.2 million to 2.5 million overseas Korean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have Korean citizenship and therefore have the rights of Korean citizens.

Therefore, they have the right to vote abroad, and what's unique is that North Koreans are also treated as our people. Of course, in reality,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s separate countries. Suppose North Koreans enter South Korea. We call them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n defector-res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and Saeteomin. We refer to them with various expressions, but they get Korean nationality right away because they are Korean.



On the other hand, foreign compatriots are descendants of the Korean people and have foreign nationality.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5 million Joseonjok in China,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Russia, Central Asia, Uzbekistan, and other countries, as well as Korean-Americans with US citizenship. In addition, there are many foreign compatriots, including adopted children.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overseas Koreans, Koreans living abroad but who are coming into Korea. They're trying to stay in Korea after coming back to Korea. We're referring to return migration, or "regression" migration. In Chinese, they say that. How many of our Chinese compatriots are returning? This is the migration of compatriots, but in terms of immigration and migration issues, it is part of foreigners' migration to Korea. Therefore, the migration of compatriots to Korea was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migration of foreigners.

However, the migration of foreigners has caused various issues in Korean society. Here, the migration of compatriots will have additional issues. Why? Because they're our compatriots. At the same time, various changes occurred in law, institution, administration, and socio-cultural aspects. The number of foreigners that have migrated to Korea depends on the time, but it's estimated to be about 2 million. Of these 2 million people, in fact, half of them are our compatriots, and many of them are Chinese compatriots.

When we think about it, we think about migration, immigration, and so on, as opposed to thinking of the compatriots as foreigners. They are not foreigners, and if we think as such, we need a different approach. The majority of these returning compatriots are Joseonjok, who are Chinese compatriots, and the Koryoin from Central Asia.

Thinking about these three perspectives, which are people, nation and foreigners, against basic institutions, systems,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Korea, does lots of things. Let me give you an example. Imagine if someone asks, "Aren't the Joseonjoks Chinese?" That could be very upsetting for those who think that the Joseonjok are members of the Korean people. In that case, it might be meaningless to form some kind of policy toward compatriots. Therefore, compatriots have a unique place among foreign migrants.



Now, let's look at a chart showing how many foreigners are living in Korea as of 2020. It's increased from 1 million to 2 million in 10 years, and now it's starting to decrease a little due to COVID-19. That's why we're talking about the era of 2 million foreigners. If you look at the statistics, it's 2 million, but half of the 2 million, 1 million, are Chinese. There are 1 million Chinese people, and they use the expression "of Korean descent" in official statistics. Of Korean descent means Joseonjok or Chinese compatriots. They're Chinese people of Korean descent. In 2016, when there were 1 million Chinese people, Joseonjok accounted for 630,000, and in 2019, when there were 1.1 million, they accounted for 700,000. Therefore, it accounts for more than 70 percent. In this way, Chinese compatriots make up most of the Chinese population. Statistically, this is the case, but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ose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s Chinese compatriots. These people aren't foreigners, so they won't be on these statistics. Therefore, roughly 800,000 Chinese compatriots live in Korea. There are about 100,000 people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It's 800,000. Out of the foreign compatriots who are in Korean society, Chinese compatriots, who we call Joseonjok, and Koryoins account for the absolute majority.

The population of Koryoin is gradually increasing again. It has continued to increase, especially since the Ukrainian War. As a result, there are 800,000 Chinese compatriots. As you may know, the population of Joseonjok in China in 2010 and 2020,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was about 1.8 million people in China. Then out of 1.8 million people, 800,000 people are in Korea. 800,000 people. Out of 1.8 million people, excluding the elderly and infants who have difficulty moving around, when we consider the people, the so-calle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lone, in fact, 60% of the Joseonjok population live in Korea, not in China. Therefore, we can't say that they're overseas Koreans. They're already back in Korea. The history of Chinese compatriots in Korea is as long as the history of foreigners entering Korea.

In the meantime, the Chinese compatriots created a place where they live together collectively, all over the country. It's an area where they live intensively. Likewise, the Koryoin created areas where they lived intensively. This is a natural phenomenon. This is because Chinese compatriots, as Chinese compatriots, and Koryoin as Koryoin, must ensure the labor market and the convenience of life to suit their needs. That's why a town of compatriots was created near a store or an industrial complex.



The representative Korean-Chinese town was created in what we call the southwestern part of Seoul, such as Garibong-dong in Guro-gu or Daelim-dong in Yeongdeungpo-gu. Representatively, they are concentrated areas created by Chinese compatriots. Then entering into the 2010s, as the population of Chinese compatriots increased, they started to live in Jayang-dong, near Konkuk University Station in Gwangjin-gu and also Siheung.

Therefore, the map that we see now is an area where many compatriots live, and an area where many foreigners live. We're talking about places like Ansan. In the case of Koryoin, they are now living in Incheon after creating an intensive town. They're building it according to the region.

Nevertheless, official statistics show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compatriots is very low. What's Resident Registration? If you've ever lived abroad, you know. If I stay in a country for a long time, I have to report it to the local police station or an institution. If you don't report it, there will be many disadvantages. Likewise, compatriots are required to report their place of residence.

However, the ratio is very low. Why is that? You need to think about this. We could say that this is about visas related to their residency. Currently, Chinese compatriots are residing in Korea with various visas. If you look here, you can find an overseas Korean visa. There are also work and visit visas, permanent resident and family visitor visas. Since they are overseas Koreans, shouldn't they be given overseas Korean visas? What is a visa for overseas Koreans? You might ask this. Unfortunately, after the visa was made for overseas Koreans, Chinese compatriots and Koryoi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did not receive these visas.

Instead, work and visit visas have been created since 2007. This work and visit visa allows them to engage in simple labor. Therefore, Chinese compatriots were allowed to reside in Korea while getting a job in simple labor. Therefore, the visa and visa status of returning compatriots in Korea differed for each.

Most of the compatriots from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come with visas for overseas Koreans. However, in the case of Chinese compatriots and Koryoin, they come with a work and visit visa. Anyway,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increased rapidly and exceeded 2 million. Out of those, foreign compatriots account for 1 million, and most of them are Korean-Chinese, about 800,000, which accounts for 80%. This all depends on the type of visa.



It differs in terms of time, but if we look at it as of 2020, about 44% of Chinese compatriots have overseas Korean visas, 40% have work and visit visas, and about 10% have permanent residency. Since this represents the form of stay in Korea of Chinese compatriots, we could say that it tells us about the lives of the Chinese compatriots and how they are viewed in Korea.

Overseas Koreans' visas are changing, but basically, they are not allowed to get a job in blue-collar labor. They can get a job in the service industry, such as in restaurants. However, if you look at restaurants, there are a lot of compatriots. In a way, they got a job in violation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work and visit visas do not allow compatriots to get a job in the service industry, but only in blue-collar labor.

Therefore, whether it's for overseas Koreans or for work and visit visa holders, inequality exists among compatriots, depending on the type of visa. As a result, due to this inequality, the ratio of Foreigner Resident Registration is low. People who receive visas as overseas Koreans have a very high rate of reporting their residence. This means many Chinese compatriots got a job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s of their own visa, so they don't report their residency.

We're talking about our Chinese compatriots, but there are people who are not included here. As I said earlier, 100,000 Joseonjoks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There are 800,000 Joseonjok, and most Koreans in Japan still have Korean citizenship. They are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so they are not included here. Those who have regained Korean citizenship are not included because they are Koreans. This also applies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North Koreans. Adoptees were also not included because their ethnicity was not properly identified. It will be included in the future.

If you look at this, it says we have 5 million overseas compatriots. In fact, 1 million out of 5 million reside in Korea, not abroad. In that respect, Korea has become a country that accepts immigration from a country that emigrates, and half of the incoming people are our compatriots. To sum up, I can say Korea created its unique situation.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1-6** Immigration of Chinese compatriots to Korea confirmed by statistics

In this part, with the help of statistics, we will look at the migration of our compatriots to Korea. The compatriots, who we call foreign nationals, are entering Korea instead of staying abroad. We call this return migration or regression migration. Let's look at the statistics of how these foreign nationals are migrating.

If you look at the statistics now, there are statistics from 2017. In a way, it did not increase much, but in fact decreased during the pandemic. This means, in fact, that the compatriots had already entered Korea before 2017. Therefore, by the mid-2010s, the migration of compatriots to South Korea had stabilized to a certain extent. It is a period of stability and completeness. That is very important. The reason is that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migration of Chinese compatriots. The generation has changed. As a result, the form of immigration became permanent along with family migration. Immigration of compatriots to Korea, which is no longer increasing, has stabilized to a certain extent.

Of the 1.8 million Joseojoks, 800,000 have already entered Korea. We could say that there are no more people who can come in. In that respect, what we actually call the migration of our compatriots to Korea is centered on Chinese compatriots. The increase in migration is not so significant. If we look at it by nationality, of course, Chinese compatriots, who we call Joseonjok or Korean-Chinese people, accounts for the vast majori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yoin, the name refers to our people who lived in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it was divided into several republics, and there were a lot of Koryoin, especially in Central Asia.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such as Uzbekistan, Kazakhstan, and Tajikistan, have each undergone various changes. As a result, these Koryoin moved from Central Asia to Russia or Ukraine, and other republics again. The migration to Korea started a little late. As a result, we categorize them as Koryoin. In reality, our compatriots are coming from each country, so statistically, they are coming out by country. However, when it comes to overseas Koreans' policies, the policy is separately stipulated for Koryoins.

In the case of Korean-Americans, they also come with overseas Korean visas, but they are returning in various forms.

In the cas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number of Japanese nationals is increasing. There are still many people who are citizens, so they don't show up in these statistics. If you look at the status of foreign nationals by major nationalities by year, of course, China accounts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It's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Uzbekistan, and Russia, where Koryoins come from. After all, Chinese compatriots and Koryoins make up the majority. I can say that. The ratio has maintained little difference from year to year, but if we look at it, it's increasing in cases like Russia. This is because overseas Korean visas are given to those from Russia. Uzbekistan and Kazakhstan are given work and visit visas. If they have overseas Koreans, entering and exiting the country is much easier, which is why the number of people from Russia has increased. I can say this.

On the other hand, in countries like Canada and Australia, people who want to stay in their hometowns in their old age are entering the country. This characteristic is reflected. Because of that, Chinese compatriots and Koryoin account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compatriots who are in Korea. Here, the Chinese compatriots have decreased. Why is that?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has increased. Why did the number of Koryoin in Korea increase? As I said, starting with giving F-4s to Russians, when the war in Ukraine broke out, people from Ukraine were accepted on humanitarian grounds. It's also increased because family bonds have been made on various humanitarian grounds. Changes in immigration policies have changed the entry of foreigners into Korea.



This table shows the number of naturalized Chinese nationals by year. In other words, it is about Joseonjok who acquire Korean nationality. It starts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around 500. By that time in 2008, that number would have grown to more than 16,000. Now, about 100,000 Chinese compatriots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lso,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acquire Korean nationality, like Chinese compatriots. In some cases, nationality may be recovered. This means that if a person who has acquired US or Canadian citizenship want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again, or if a descendant of an independence activist wants to acquire it, he or she will have it restored or acquired again. That's how they get Korean citizenship.

In addition, a typical case of obtaining Korean nationality is naturalization based on so-called marriage immigration. When one marries a Korean national, one's spouse acquires Korean nationality. First, they do simplified naturalization, and then they become fully naturalized. Then, they will acquire Korean nationality and become a Korean citizen. However, most married immigrants here are from Southeast Asia, but in the early days, there were also many Chinese compatriots. Some Chinese compatriots were naturalized by marriage immigration.

Therefore, when our compatriots acquire Korean nationality, it takes various forms, such as meeting certain conditions, falling under marriage immigrants, or being included in a specific group such as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Thus, it is done in various forms.

In recent years, for our compatriot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or for foreigner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various types of ceremonies are prepared. They have commemorated 200,000 naturalized citizens, which means we have 200,000 naturalized people of Korean nationality. Out of those, about 100,000 are Chinese nationals, and the other approximately 100,000 are foreigners. This is a photo that shows the event where the Ministry of Justice delivers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It's a picture of them holding the national flag of Korea with the kids of people we call multicultural families. It also grants nationality to Sakhalin compatriots. Sakhalin was a place where people from South Korea went mainly due to forced conscription during the Japanese era. That's why we're giving them nationality. However, on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 given nationality, we have created a nationality determination system to give nationality to those who have returned to reside permanently.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acceptance of permanently returned Sakhalin compatriots in 2021.



Recently, international adoptees have also been granted Korean citizenship. An intercountry adoptee can be an orphan for a variety of reasons. There are also cases of single mothers. They adopted a lot overseas. It is really a shameful history of Korea because the adoptees who went abroad are descendants of our Korean people. We recently began to give them nationality.

Therefore, when we talk about our compatriots residing in Korea, among the foreigners entering Korea, there are various categories. Even according to these immigration statistics, we have people who have acquired nationality, people who have not acquired nationality but have permanent residency, overseas Korean visa holders, work and visit visa holders, people with family visitor visas, and various other visa holders. In naturalization and nationality, the independence movements were active in Manchuria and Primorsky Krai, right? We're giving their descendants nationality again.

These various forms of immigration policies have created complex forms of residence. Depending on the form of sojourn and the form of immigration, they are working. We looked at the statistics on the migration of Chinese compatriots to Korea. The migration of these Chinese compatriots to Korea is absolutely not independent. As we took a look at earlier, migration as a megatrend on a global scale is a worldwide phenomenon. Especially in Northeast Asia, China's transformation in Asia has been remarkable. In the process, movement from China was also active, and one of the destinations was Korea. In particular, by the policy of compatriots of China, by the policy of immigration, Chinese compatriots came in large numbers. We're talking about the migration of Chinese compatriots to Korea. This combines the 21st-century phenomenon of foreigners' migration to Korea. The unique perspective of overseas Koreans, compatriots, is reflected in the immigration policy. In this way, Chinese and Koryoin compatriots entered the country, forming a society of 1 million people, and in the process, the Chinese compatriot society, the Koryoin compatriot society, have had various influences on Korean society. In the process of these large macro changes leading to microscopic changes, we can take a more systematic look at the migration of Chinese compatriots to Korean society.



# 讲义





## 国际移居与中国同胞的韩国移居

### 1-1 移居的时代

大家好，我是仁荷大学国际关系研究所所长李振翎教授。

今天我们一起了解一下中国同胞的韩国移居及相关内容。

首先，我们来观察国际移民趋势了解一下全世界全球化时代移居是如何发生的。我们使用着'移居'或者'移民'的用语，还有一些地方使用移动这个用语。这各个都是在翻译英语中的Immigration的过程中出现的。那么来看一下我们常使用的'移民'这个词的汉字词吧？看这个汉字词的'移'的话，"禾字旁"旁边贴着"多"字。也就是说水稻多的地方、大米多的地方，所以意思就是吃的地方多的地方。人们往那边移动的可以说是移民。最终，移民是指为了过更好的吃饭和生活而越界移动的现象。

但是最近也经常使用移居这个词。移民是指迁移到某个特定地区，继续生活在那边。因为现在也有不在一个地方定居，继续移动的情况，所以在韩语中经常使用移民和移居这两个词无论如何我们同时使用移民 移居等的用语，主要焦点是发生移民和移居是为了更好的生活，可以说，从某种角度来看劳动性很强。

但是移居实际上是全世界性的现象。特别是在地球村时代，有国际移民组织（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是联合国联系组织。这国际组织用英文叫IOM。在这个IOM的主页上，可以看到全世界的移民动向。就是说现在主页上显示的地图上用圆圈标记的在显示有多少人移居。我们可以说从21世纪、20世纪后期开始全世界都是移居时代。有多少人移居 还有那些移居的人去哪里，我们可以通过这个主页知道这些部分。



但重要的是移居是一种全球现象，也就是说，我们听说中国朝鲜族移居到韩国的时候，虽然在中国朝鲜族移居会有独特特性，但基本上现在移居在全世界变得普遍化。据说,全世界人口中,目前有2亿8千万人左右正在移居。所以说，这么多人在人口中占3.9%，这么多人移动，可以说是前所未有的。因此在全世界人口中，每7人中就有1人是移民者这一点来看，移居就是一个21世纪中，一种流行趋势，那个趋势可以说是超级趋势。

这IOM，国际移民组织的秘书长说的内容。但是这个移居,我们只向海外说,国内也有移居吧。所以包括国内外移居,全世界移居者人数目前达10亿。当然,根据年度统计可能会有所不同。是在说，生活在地球上的每7个人中就有1个人是移居者。

在韩国说移居、移民的时候是指去别的国家，其实，也有离开自己的根据地，移居到城市或其他地方生活的情况。在这种情况下,其实应该包括在移居，但基本上讲的是移居到其他国家。所以当我们谈论移居的时候，所谓的可持续发展目标，Sustainable Development Goals，简称SDG。这可持续发展目标是在2015年联合国提出的全世界目标。

但是在这个目标上，移民、移民也是一个重要的变数。可以说移民是非常重要的现象。现在国际移民组织中还有韩国代表部还运营资料室，所以我们现在要谈论的移居、移民相关用语可以通过这里出现的词典可以更详细地了解。我们谈论移居的时候，那么从哪里到哪里去， 因为是移动的。



但重要的是,移居是在国民国家体系中发生的。有点难吧?国民国家,在英语说nation state,在韩国翻译成民族国家,法国革命之后,就是说18实际后,近代国家、民族、国民基础国家出现了。从那种角度来看,这是modern nation state,叫近代国民国家。但现在近代国民国家与之前的国家有什么不同呢,就如字面所说的那样,是国民国家,会有国民,还有国境 领土,有领土,该领土作为一个主权在国际上得到保障。国民国家是个别国家拥有主权,在自己的国民、领土中形成的国家。

但现在变成全球化之后,这些领土、边界等开始变得模糊。所以移民本来就是migration across national borders,也就是说超越国民国家的境界移动的叫做移民。刚才我们谈移民的概念的时候,讲过。因此,关于移民国民国家据有政策。可以接收移民也可以遣送出境,这就是移民政策。作为一个国民国家的政策,在谈论移民政策。

但是移居是比这个更广泛的概念 为什么呢因为地球化时代已来临。随着全球边境变浅,移动频繁 不只人们移动。随着商品的出口和进口,商品也会移动。还有我们像新冠病毒一样,病毒有国境吗?试着阻止,但没有边境。其实所谓的移动及移居,可以说是地球化时代的一个特征。因此,当我们谈论移居时,这是一个全球性的现象。另外,这是近代国民国家以后出现的更多的、全球化时代、地球时代出现的现象。而且这是超级趋势,规模也巨大。然后在全球范围内看待移民,与此同时,逐渐缩小范围,我们可以限定在亚洲地区,另外,在亚洲也可以限定为东北亚、东南亚,也可以限定为韩国。也可以限定在韩半岛,还有在韩国也可以限定为地区,也可以把焦点放在被称为移民的个人身上,

所以现在在地球村时代的超级趋势的移居时代来说,这样,我们不是把移居看作从前一个国家到另一个国家的移民而是从不同的层面看待移居。通过从这样的层面上观察,事实上明确地表现出了移居的性质,就这么想。



我们在课上讲的在韩国的中国同胞，朝鲜族社会形成的过程，这不是单纯地谈论朝鲜族的移居，而是全世界、东北亚、中国和韩国之间，或者显示在韩国国内中各个地区社会里中国同胞朝鲜族的移居，所以我们应该从不同的层面来看待的意思。总而言之在我们移居的时代全球化时代特别是在21世纪，这是一个日常化的移居，韩国也不例外，说这些话，我想总结内容。





## 国际移居与中国同胞的韩国移居

### 1-2 移居亚洲

这节课我们将了解移居，特别是在亚洲地区的移居。移居是21世纪的超级趋势这是全球性的现象。那么尤其在亚洲怎么样呢。

国际移民组织IOM每年都会出报告。这里正在制作关于亚太地区移居的各种现象的报告形态。现在可以看到2020年的报告，同样看国际移民组织的网站的话，显示着关于移居的全球范围的数据。我们以这些为参考来看，在全世界范围内移居是什么现象呢，其实从某种角度来看，移居是当今是一种全世界性的现象，在亚洲也是独特的现象。

在亚洲，到2020年，者移民已达8300万人。所以在全世界2亿8000万名者移民中占30%左右，而且可以看出与2019年相比也有所增加。尽管新冠肺炎猖獗，但如此增加，这意味着移居现象在21世纪是主要和普遍的现象。

在亚太地区，每51个人中就有1个人移居到了其他国家，而且移居的国家中，东南亚和南亚这两个地方实际上是移民的出发地，也就是说，南亚是指印度、巴基斯坦、斯里兰卡、孟加拉国等地方。也就是说，南亚是指印度、巴基斯坦、斯里兰卡、孟加拉国等地方从这些地方移居的人们，还有像越南或泰国，菲律宾等从东南亚国家移居的人们占36%和28%事实上可以知道，亚太地区这两个地方是移民的出发地。

而且现在我们因为新冠疫情减少了，所以需要考虑这些统计，但是对于整体增加趋势还是一样的。

当然包括东亚国家、韩国、中国、日本。在这个地区，移民也占18%左右，中国将成为主要对象地区。



因此,如果我们看这些数据,就会发现来自哪些国家、哪些地区的人, 移居到哪些国家、哪些地区。同时,减少的地方是哪里,增加的地方是哪里,哪个国家出身的人经常移居,等等, 哪个地区出身的人移居到哪个地区或国家等, 可以知道这些内容。总体来说正如刚才所说,现在亚太地区移居仍在增加,

但是这个根据地区有所不同, 东北亚或太平洋地区有所减少, 相反, 东南亚或西南亚、西亚和南亚的情况有所增加, 为什么呢? 我们可以考虑一下。

像东北亚地区对新冠肺炎采取了非常严格的政策。特别是像中国来说, 一直维持动态清零政策。韩国和日本也一直采取了尽量减少移动的政策。因此,移民者没有增加,反而减少了。

但不管是新冠疫情, 在中东地区, 也就是说,西南亚地区、南亚、东南亚地区有所增加。而且, 增加幅度也达到7.8%和6.1%, 有非常多的移民,

那么第二点就是来自哪个国家的人经常移居。就像刚才说的 在东北亚反而减少了, 但可以看出中国出身的人仍然移居了很多。当然, 移居最多的地方是印度地区。 有1780万人移居到别处, 中国也有1160万人, 因为这两个国家拥有15亿人口, 实际上, 从比例上看, 也可以认为不是很多。

但是, 南亚国家中像孟加拉国这样的国家移动了740万人, 巴基斯坦为630万, 而菲律宾为609万, 还有, 我们经常谈论难民问题的阿富汗有580万人移动, 印度尼西亚为460万人, 缅甸为370万人, 越南为340万人, 尼泊尔为260万人,



我们现在要学的并不是关于亚洲各国的移动。我们正在谈论从中国移动的我们的同胞,中国同胞朝鲜族的移动,但是现在在亚洲,每个国家的移动也都有独特的性质。正如我所说,像阿富汗情况来说难民移居的人可能很多。缅甸的情况也可以说是在政治不稳定的情况下难民性移民较多。相反,越南、印度尼西亚、菲律宾等的地区有很多劳动移居性质,像菲律宾来说,正在劳动移居到全世界。

相反,孟加拉国和巴基斯坦等不仅是移居,而且是移居到全世界特别是移居到中东地区,因劳动移居而非常突出,所以说,各个国家都在按照适合各国的方式进行移居,从中国移居也具有中国移居的特性。根据其移居特性,中国同胞们进行了移居,我们可以这么说。

这份报告还有摘要,在这8200万名亚洲地区的移居者,那么这些人去哪里了呢?如我所说,有42%人从亚洲移居到其他国家了。印度人中有440万人左右去国外,中国人有400万人左右,而且可以看出澳大利亚人也移居得非常多,所以我们在进行各种各样的移动,从目前移动最多的地区来看,孟加拉国、印度、阿富汗和伊朗阿富汗、巴基斯坦、印度、巴基斯坦等的地区属于这里。

然后就这样移动到其他地区,也移动到其他国家,但也有很多人停留在那个地区,所以说去那个地区的其他国家,所以说,与其说是移民,不如说是移动或移民的话,可以看出,正在发生如此广泛的移居。

而且这个叫移居的东西也有想要的范围移居,事实上以现象,以条件为进行移动,那是什么意思呢,最终移居者有他们想去的地方,例如,难民的目的地往往是英国可那是心甘情愿。与之不同,根据情况也会移居到其他地区。

其中,劳动移居将成为非常重要的观点,为什么呢,移居者中的大多数是年轻人,可以工作的经济活动人口占大部分。所以为了过更好的生活,为了得到更多经济优惠而移居。



从韩国的情况来看，我们历史上被派往德国的矿工、护士，或者被派往中东地区的劳动者，如果你想到这些话，我想呆在韩国的人们很快能理解这部分，所以这种现象虽然韩国现在劳动移居的形态发生了变化，但在全世界范围内，特别是在亚洲来说这种劳动移居仍然是非常重要的现象。当然，就像难民一样的 humanitarian protection ? 也会有那种问题。还可能有气候难民之类的部分，还有我们现在正在做的 diaspora relations, 也就是说，可能会有与在外同胞有关的移民。

所以说是全世界范围内的移居，这在亚洲也是超级趋势，在亚洲各地区也有差异，最终劳动移居的性质最为重要，这在新冠疫情下继续增加，可以这样概括。





## 国际移居与中国同胞的韩国移居

### 1-3

### 外国人移居韩国

这节课我们来了解一下外国人移居到韩国的情况。尤其先谈一下关于外国人移居韩国的争议事项。外国人向韩国移居。当然，疫情之前和疫情之后有差异，目前，国内居住的外国人人数在1997年为30万人。但是2020年是230万名，所以实际上可以说是200万名，而且，预计2022年以后将达到300万人左右，这相当于韩国总人口的6%左右，其实是这样预测的。但是随着新冠疫情的出现，外国人移居到韩国的步伐暂时停滞不前，

但重要的是，在过去的20多年里，从韩国移居的外国人急剧增加。发达国家的组织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包括韩国在各个国家的人口中，5%以上的人口是外国人时，规定于多元文化社会，或者说是多种族社会，也可以这么说。因为翻译了英语中的multicultural society，所以被称为多元文化社会，就这样翻译成多元文化社会。

韩国怎么样？韩国以一个单一民族的国家感到非常自豪。但如果达到5%以上，就会成为多文化、多民族、多民族社会。那么在韩国社会中的局面出现各种变化，不仅是劳动，还有家庭关系，以及对社会的各种福利，所有部分都可能出现变化。因此，外国人移居到韩国是一个非常争议焦点。这不仅在韩国社会，在所有国家都是如此一样。

我们来看一下新闻，因为我们在谈论中国同胞移居到韩国的事情，看2016年的报道，新国家党金代表就老龄化带来的人口减少问题，现在应该制定移民政策，但在我们的移民政策中，应该广泛接纳朝鲜族，他说过这句话，所以这个朝鲜族不就是指中国同胞吗？特别是在这种背景下，他认为普通移民在种族上、民族上会存在差异。但是作为同胞的中国同胞朝鲜族是我们的民族，所以移民带来的文化冲击应该会减少一些吧，有这样的背景。



当然,现在直接说这句话的话,是特别争端,因为现在出现了基于民族的歧视性因素。另外也可以说是出现了,对其他入种、其他民族的厌恶性歧视。但重要的是,现在韩国社会2016年为低出生率对策的一环,开始谈论移民、移居问题,在移居问题中也公开谈论了接纳中国同胞的问题。

我们再回到2021年吧?看2021年的一篇报道的话,韩国,要接收难民吗?要变成移民国家吗?我们在2016年说移民政策,移民国家,现在真的要变成移民国家吗?难道要像OECD所说的那样改变吗?但是这里出现了难民问题。

这是2021年10月阿富汗被塔利班控制的。同时,由于曾在韩国政府、韩国公馆或Koika等多个机构工作过的阿富汗人,及其家属可能面临危险,韩国政府决定接受他们。但是当他们来的时候,把他们认为普通移民还是难民,这成为争论的焦点。也有这样的限制,因此以"特别有功者"的名称,从人道主义的角度大规模接受了纷争地区的外国人,是这么说的。所以从某种角度来看,虽然这是以特别有功者的形式接受了阿富汗人,我们知道阿富汗发生了大规模难民。

最终在全球性的移民问题、移居问题、难民问题上,韩国也并不自由。而且进入了如何解决这个问题的争论点。也就是说,从某种意义上我们也到了要认真审视移民问题的,各种因素的时刻,简单来说,赞成、反对,赞成接收难民、反对,暂且这一点,在移民方面,移居的各种性质,劳动移民、家庭移民、难民同胞、环境移民、有很多移民,对这些部分,这成为韩国社会思考这些问题的契机。

自2020年以来,我们一直在以各种方式讨论移民问题。特别是韩国社会的人口会减少,还有出生率也可以说是出生率,韩国在全世界倒数第一。与日本相似,虽然出生率非常低,但在接收移民问题上也封闭的。只有0.1%的人口与外国移民日本的比例相似,日本也在强调单一民族,但这是从韩国看待的争论点。从移民的立场来看,韩国是否有魅力是另一回事,另外,韩国还能按照自己的意愿方向吸引移民者吗,这也可以说是另一个问题。



所以到目前为止，韩国还创造了投资移民之类的政策，如果在济州岛投资5亿韩元的房地产，就可以让移民者来到韩国，但是随着韩国国内的反华情绪和所谓的萨德末段高空区域导弹的部署与中国的联系破裂了，结果中国人不怎么来了。那意思就是投资移民不圆满呈现，所谓的投资移民。因此，在这种情况下，由于新型冠状病毒移动受到了很大限制，结果移民变得很难。

在这种情况下，人口一直在减少该怎么办，我们需要的部分是什么，是需要低工资，而且主要是3D的单纯劳务，还是需要高级技术人员，还是人道主义层面已经到来的移民者带来他们的家人呢，有各种移民的争论焦点，对于那些争论点韩国正在思考中。

我们现在在谈很多关于出生率的移民问题，根据最近的统计，这一合计出生率从某种程度上说，女性在孕龄期间连一个都不生。最终一个人不生一个，所以实际上人口就会减少，而且，如果结婚的话，就意味着两个人连一个也不生。结果人口结构上的变化是不可避免的。

但韩国政府在2006年至2021年的15年间，作为应对低出生率的措施，投入了280万亿韩元的巨额预算。尽管如此，低出生率问题仍未解决。所以在这280万亿韩元的钱中，哪怕是一部分也可以用作与移民相关的费用，不是很好吗？韩国政府想到这一点，在2022年12月28日制定移民政策后，宣布应对人口结构变化的程度。

所以现在在谈论在韩国的移民争论点，但这移民政策的争论点不仅仅是劳动的问题。韩国的人口，低出生率，未来，政治，国际政治，相互关联的世界，都有关各种争论点。在这种情况下，将中国同胞视为移民政策的一环也是，非常有争议的事项，可以说是与政治密切相关的事项。





## 国际移居与中国同胞的韩国移居

### 1-4 用统计数据来看外国人移居

这节课我们把到韩国的外国人的移居，对这个部分通过统计来看一下。对于来韩国的外国人，法务部有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在这里做着统计，还有这个统计谁都可以看，可以说是个网站？通过官网可以看到出入境统计的各个部分。特别是从滞留外国人的统计来看，我们可以了解到外国人移居到韩国的情况。当然也可以知道整体趋势，另外，还可以知道新冠时代变化的那些变数。

在这节课上，我们会主要把焦点放在哪个地方为进行讨论。这是因为外国人移居到韩国主要根据国籍和，签证形式的不同而有所不同，所以我想对这一点概括性的统计一下。特别是在谈论中国同胞移居到韩国的问题，所以在这方面，整体上哪个国家的人来的比较多，还有以什么样的形式的签证到达，我想谈谈这样的问题。

首先我们可以看到按年度人口计算的滞留外国人现状，可以说是2016年到2021年的统计。所以我们看的话现在大概在5%以下，如果滞留外国人超过5%，在OECD，是经济合作与发展组织，规定为多元文化社会，多民族社会。还有成为多民族、多元文化社会社会的话，为了符合那一点，建议改变行政服务，但无论如何，韩国的情况是，目前仍维持在5%以内，可以这么说。

还有每年长短期滞留外国人的部分，我们区分短期和长期。短期是指90天，超过90天的话变成长期，所以90天大家都知道可能会有旅行，但在区分简单旅行和短期滞留。而且在长期有很多种吧，根据可以长期滞留的签证类，可能是教育，像留学似的或者可以说是家庭结合，也可以说是劳动，可以说是多样的。但重要的是，在长期和短期的比例问题。



也就是说，长期居住者的比例正在逐渐增加，这句话表示要继续留在韩国的意思，意味着成为韩国居民或成为韩国国民，也就是说有变化的意思。

下面我们看到的统计数据是主要国籍滞留外国人的现状。所以可以说是哪个国家的人来的最多的内容。正如大家所看到的，可以说中国占得巨多，然后是越南，有些人可能会觉得有点意外。越南为什么会这样呢？我们现在可以看看，假设是劳动移民来的，或者作为组成多文化家庭的婚姻移居者，我们经常谈论越南新娘，是因为这种婚姻移居来的嘛，总之现在在韩国来说，包括中国、越南、美国在内的这些国家占多数。因此，来自某个特定地区，是在与该特定地区的关系中进行的，移民。所以在中国这种情况下，是中国的全体中国人吗，在中国，中国同胞占多少比例，这些都很重要。

现在看的话，像中国的情况来看，2017年有100万人左右。越南有17万名左右，然后是泰国、美国、乌兹别克斯坦。但是我们在乌兹别克斯坦的情况下也会说是同胞高丽人，是以前在苏联地区的同胞们的后裔，特意给这些人签证。正在给叫访问工作签证的H-2签证。结果，从乌兹别克斯坦来的高丽人移居到韩国的人数正在增加。所以现在乌兹别克斯坦移居者中，虽然可能是乌兹别克斯坦的其他民族，但高丽人占着大比重。

美国也一样，我们说在美同胞的，还说回归移民是指回来的意思，因此,如果获得美国公民权,超过65岁,将允许拥有多重国籍。所以有很多人因为忘不了故乡回到韩国，尤其是年轻人因为韩流，最近正在急速增加。

相反,泰国和越南来说，劳动移居性质更强，越南和泰国在韩国的劳动力中占着非常重要的部分。此外，在婚姻移民中也占着重要的部分，排在第一位的中国也是劳动移居，还有作为同胞的中国同胞，结婚移居在这方面占了巨大多数。所以在移居到韩国的过程中，就像现在所说的，有多种形式的移居。



相反,我们来看一下更劳动的方面,还有高级劳动的方面。从留学生的现状来看,虽然参差不齐,但在这个留学生中,中国留学生的比重也占了巨大的比重。像专业人员来说,几乎没有增减。那么,我们的专业人才是一定比例的,为什么会有很多外国人进来呢?特别是占1、2、3位的中国、越南、泰国说有很多劳动移居,那是什么劳动呢,最终可以看出,引进了很多单纯的劳务人员。这个单纯的劳务人员对韩国经济的贡献如何是另一个争论点,总之,我们可以看到,外国人到韩国移居不是以专业人才为中心,而是以单纯的劳务人才为中心,尽管如此,每年的简单技能人员似乎都在有所减少。

特别是因为新冠疫情,但这也是统计的陷阱。是什么意思呢,就是因为很多人不是用工作签证而是用别的签证来工作。最具代表性的是在外同胞签证。在外同胞签证是F-4,通过这种签证可以从事劳务,范围扩大了。结果,不是单纯地作为技能人力的签证,而是作为其他签证从事单纯劳务的人也在增加。

同样,结婚移民者也在增加,但是结婚移民者当然是来结婚后在韩国提高出生率,但是大部分都在做经济活动。因此,经济活动,不管怎么说还是大多从事单纯的领域,或服务行业,所以从劳动移居的角度来看,虽然在统计中表现得没有明显,但从婚姻移居者的角度来看,可以说是表现得不同。而且,这婚姻的移居者比例还在增加。

我们来看一下所谓的定居资格吧。定居得意思就是永居,永远居住,所以国籍 即市民权不是韩国国籍,而是要继续在韩国生活的意思。当然国籍有可能是中国,也有可能是日本,也有可能是其他国家。正如您所看到,永久居民在持续增加。永久居民制度出台后,大约有10万人以上现在获得了永久居民卡,也就是说,现在永久居民的比率正在上升。

因此,从我们的统计来看,外国人移居到韩国,实际上是在新冠疫情下增加的,而且由于新冠疫情的情况暂时放缓。而且,特别是以劳动移居为重点进行的。



但是根据韩国的制度特性，以多种签证形式进行，因此也有这种劳动移居的特性没有明显体现的情况，我可以这样说。特别是第一移民国，像中国因为包括中国同胞朝鲜族，所以实际上在移民中同胞的特性也是非常重要的因素，我再次说一下。





## 国际移居与中国同胞的韩国移居

### 1-5

### 中国同胞移居韩国

这节课我想谈谈韩国同胞社会的形成。想了解一下移居到韩国的外国人，其中同胞们是如何移居形成同胞社会的。

我们说同胞，在韩国正式称为在外同胞，在外，是住在外国的同胞的意思。结果是在海外，滞留在海外的同胞，但现在在韩国的意思，所以从某种意义上来说，话里出现了矛盾，韩国国内的在外同胞话很奇怪吧。

不管怎样，我们对外同胞在韩国根据国籍分为两类，有韩国国籍的人，没有韩国国籍的人，也就是有外国国籍的人。所以有韩国国籍的人是在外国民，因为是韩国国民，是在国外的人。相反，有外国国籍的人是外国同胞，作为韩民族后代被称为外国国籍同胞。

那么我们大体上看人口的话，说在外同胞人口是730万，750万。基本上，在外国民220万到250万左右，还有外国同胞有500万名左右。当然，我们如何统计推算这一点其实非常困难。所以这个可以说是估算值 总之在外国民不管是220万 还是250万，根据情况不同，因为是我们国民，所以有作为国民的权利，所以有在外选举权等的权利。

而且独特的是，北朝鲜人也被当作韩国国民的对待，当然，从现实情况来看，北朝鲜和韩国是以单独的国家加入为联合国的，但如果北朝鲜人进入韩国，我们会叫他们脱北者、脱北居民、脱北脱离民、各种新居民各种表达方式称呼他们，但他们马上就会获得韩国国籍，那因为他们是韩国人。



相反，外国国籍同胞是韩民族的后代，是有外国国籍的人。现在有500万人，在中国的朝鲜族，还有以前苏联地区的俄罗斯、中亚、乌兹别克斯坦等国家的高丽人，还有美国的在美同胞中的公民，这些人。还有很多外国同胞，包括被外国人收养的领养儿的人。

但是我们今天要说的是在外同胞，在国外的同胞，他们正在回韩国。想回到韩国继续留在韩国，我们把它叫做归还移居，或者回归移居，在中国还会这么说。所以，这个正在回归的中国同胞会有多少呢，这个可以说是同胞移居，但从移民、移居问题来看，这是外国人移居到韩国的一部分。所以说，同胞们移居到韩国是与外国人的移居联系在一起进行的。

但是外国人的移居在韩国社会引起了各种争论，这里同胞们的移居还有其他的焦点事项吧，为什么呢？因为是我们的同胞。同时，在法律、制度、行政、社会文化方面出现了各种变化。如果我们说外国人移居到韩国，虽然每个时期不同，但大概是200万的话，在这200万人中，事实上有一半的100万是外籍同胞。而且其中多数是中国同胞。

所以当我们考虑的时候，会想到移居，移民，这种想法，只想着是外国人和同胞们又不是外国人，如果有这种想法的话，就需要别的接近方法吧。这些回归移居的同胞中，大多数是中国同胞朝鲜族和来自中亚的高丽人。

所以，以这个民族和国民、外国人这三种观点，对韩国社会基本拥有的制度、体系、惯例、认识等，提出了各种挑战，来举个例子吧？有人说：“朝鲜族不是中国人吗？”的话，把朝鲜族认为是韩民族一员的人的立场来看，可能会非常遗憾。那么对同胞采取什么政策可能没有意义，就这样，同胞们在外国人移民中也占着独特的位置。



现在正在出示以2020年为基准的图表,居住在韩国的外国人数。10年间增加了100万到200万名左右, 现在因为新冠肺炎开始减少了。所以我们现在说的是200万外国人时代。但是看这个统计的话, 200万很好, 那200万中一半的100万是中国人, 中国人有100万, 而且在官方统计中也使用了韩国血统的说法。韩国血统指的是朝鲜族或中国同胞, 是韩国血统的中国人。所以2016年100万的时候是63万名, 2019年中国人110万名的时候也是70万名, 也就是说占了70%以上, 但是中国同胞在中国人口中占了绝大多数。统计上是这样的, 但在这里, 我们作为中国同胞取得韩国国籍的人, 这些人不是外国人, 所以不会出现在这个统计上吧。所以大概有80万中国同胞住在韩国, 这样说着。拿到韩国国籍的人有10万左右, 那么说是80万, 所以在这些外国同胞中, 在进入韩国社会的人们中我们提到了被称为朝鲜族的中国同胞和高丽人, 在那里又占了绝大多数。

高丽人的人口又在逐渐增加。特别是乌克兰战争后, 也在持续增加。所以有80万名中国同胞, 或许有人知道, 在中国的朝鲜族中国同胞的人口在2010年、2020年大约有180万人左右, 在中国官方统计, 那么180万人中有80万人到了韩国, 80万人, 那么, 在180万人中, 除了行动不便的老人或婴幼儿之外, 仅我们所谓的经济活动人口来看, 实际上中国同胞朝鲜族人口的60%不是在中国生活, 而是在韩国生活。所以我们不能把他们称为在外同胞了, 他们已经回韩国了。但是这到韩国的中国同胞的历史和外国人到韩国的历史一样长。

同时, 中国同胞在全国建立了同胞的聚居地。可以说是集中居住的地区, 同样, 高丽人也建立了集中居住的地区, 这是自然现象。因为中国同胞要按照中国同胞的要求, 高丽人同胞要按照高丽人同胞的要求, 为了符合自己的要求, 劳动市场等生活便利要得到保障。所以在商店或产业园区附近建立了同胞城。



代表性的中国同胞城是在我们叫做首尔西南地区的地方建造的，九老区的加里峰洞或者永登浦区的大林洞这样的地方，是原来建成的中国同胞集中区。而且从2010年代开始，中国同胞的人口越来越多，广津区的紫阳洞、建大入口站附近有很多人居住，始兴也有很多人在居住。

所以现在出现的地图是指同胞居住较多的地区，还有外国人居住较多的地区。我们说像安山这样的地方。高丽人现在在仁川建立了一个集中的城市，居住在这里。像这样根据地区进行建立。

尽管如此，根据官方统计，同胞们的住宿申报，这非常低。住宿申报是什么呢？在国外生活过的人应该都知道。如果我在某个国家长期滞留，必须向当地警察局或机构申报。如果不申报的话，会受到各种不利影响。同样，同胞们也会举报自己所在的地区。

但是那个比率非常低。为什么会那样呢？要这样想一下。所以我们可以说这是关于签证，签证的那种滞留的内容。中国同胞现在有各种签证，看的话有在外同胞签证，有访问工作签证，有永久居住权，还有访问同居签证。因为是在外同胞，所以当然要给在外同胞签证吧？在外同胞签证是什么？可以会这么问。不幸的是，在外同胞签证建立后，中国同胞和前苏联地区的高丽人同胞得不到在外同胞签证。

但是从2007年开始，制定了访问工作签证。所以这个访问工作签证可以从事单纯的劳务。因此，中国同胞可以在单纯的劳务就业的同时滞留在韩国。因此，在韩国的回归同胞的签证、签证滞留资格因同胞而异。

像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地的同胞大部分都是拿着在外同胞签证来韩国。但是中国或高丽人是访问工作签证来的。所以不管怎样，统计显示韩国国内的外国人急剧增加，超过了200万人其中外籍同胞有100万人，主要是朝鲜族，占其中80%，约80万人。而且这取决于签证的形式。



因此,虽然现在时期不同,但以2020年为基准来看,拿着在外同胞签证的中国同胞约占44%,拿着访问工作签证的人占40%永久居住权占10%。也就是说这反映了中国同胞在韩国的滞留形式,所以那些中国同胞的生活,还有在韩国的视角,这些都体现出来了。

在外同胞签证正在改变,但基本上不能在单纯的劳务中就业。像饭店之类的服务业可以就业。但是看食堂的话,有很多我们的同胞。也可以说是违反规定就业的。相反,访问就业不能在服务业等地方就业,只能在单纯的劳务中工作。

也就是说,是在外同胞签证还是访问工作签证,根据这一点,同胞之间也存在着不平等。而且,由于这种不平等,外国人居所申报的比例很低。收到这种在外同胞签证的人居所申报比率非常高,这句话指的是因为中国同胞就业的情况与就业签证不同,所以不怎么申报居所。

但是现在我们这样谈论回归的中国同胞,这里有同胞中也有不包括这里的人。刚才也说过,10万名朝鲜族获得了韩国国籍。所以说是80万朝鲜族,而且在日同胞大部分都是韩国国籍。他们是在外国民,所以不属于这里。重新加入韩国国籍的人,也有恢复国籍的人所以不属于里边,因为是国民,脱北者当然北朝鲜人也是这样。海外领养人也不包括,因为他们不知道这是民族性的,以后会包括在内,

所以从这儿来看,我们有500万海外同胞作为外籍同胞在海外,事实上,500万人中有100万人滞留在韩国,而不是海外。从这个角度来看,韩国现在从移民的国家变成接收移民的国家了,在接收移民的外国人中,同胞占一半造成了韩国独特的那种情况,可以这样概括。





## 国际移居与中国同胞的韩国移居

### 1-6

### 用统计数据来看中国同胞移居韩国 认知居住在我周边的外国人/同胞

这节课将在统计的帮助下，了解同胞们移居到韩国的情况。我们叫外籍同胞的同胞们，同胞们不在海外，正在入境韩国。还说归还移居，也称为回归移居。那么通过统计来看看这些外籍同胞是如何移民。

现在看统计的话 是从2017年开始的，从某种角度来看,没有大幅增加,发生新冠肺炎事态时就会减少。那句话实际上意味着2017年之前同胞们已经进入了韩国。因此，从某种程度来看2010年代中期左右，同胞移居以经到了稳定期。到了稳定和完备的时期，这一点非常重要。因为随着中国同胞移居的开始，20多年过去了，就是说一代人变了。那么，因为它具有与家庭移居和一起永久居住的移居的形态。这一点是同胞们移居到韩国没有增加，而是具有一定的稳定趋势。

180万中国朝鲜族中已经有80万到了韩国。也可以说没有人再进来了，在这一点上，我们实际上把同胞移居到韩国称为以中国同胞为中心，我可以先告诉大家,这移居的增加并没有那么大。按国籍来看，当然是中国同胞，我们又称朝鲜族，又称韩裔中国人的中国同胞占巨多。



相反, 高丽人是指生活在前苏联地区的我们民族的名称, 但1991年苏联解体后, 分成了几个共和国。而且, 特别是中亚地区居住着很多高丽人, 还有新独立的国家, 乌兹别克斯坦, 哈萨克斯坦, 塔吉克斯坦些国家在每个国家都经历了各种变化。结果, 这些高丽人又从中亚移居到俄罗斯或乌克兰等, 其他共和国 移居韩国开始得有点晚。虽然我们把高丽人归类, 实际上, 每个国家都有我们的同胞来, 所以统计上是按国家来的。但是在外同胞政策上, 单独规定为高丽人来制定政策。

在美同胞来说, 虽然拿到了在外同胞的签证, 但正在以各种形式回归。

在日本同胞的话, 虽然在日同胞的日本国籍取得者正在增加, 但由于仍然有很多是人维持着国民的身份, 所以没有出现在该统计中。因此, 从各年度主要国籍的外国国籍同胞现状来看, 中国当然占巨大, 接下来是美国, 还有高丽人的出身国乌兹别克斯坦和俄罗斯, 可以说中国同胞和高丽人占大多数。

按年度来看也没有太大差异, 维持着那个比例。但我们看的话, 俄罗斯的情况正在增加, 其理由是对俄罗斯出身的人给外同胞签证。给乌兹别克斯坦或哈萨克斯坦访问工作签证, 因为拥有在外同胞签证更容易出入境, 所以俄罗斯出身的人增加了, 可以这么说。

相反, 在加拿大或澳大利亚这样的地方, 很多人想晚年在家乡过日子很多人都在入国, 因此, 中国同胞和高丽人占了进入韩国的同胞的绝大多数, 在这里中国同胞似乎减少了, 那是为什么呢? 因为取得韩国国籍的人增加了高丽人同胞为什么会增加呢? 正如我所说, 给俄罗斯出身的人F-4开始, 乌克兰战争爆发时, 从人道主义的角度接受乌克兰出身的人, 而且在各种人道主义的层面上实现了家庭的结合, 才会增加了。像这样, 外国人到韩国入境是因为移民政策的变化而改变的。



现在这张表显示了各年度中国同胞归化人数。就是说，对于取得韩国国籍的朝鲜族，一开始只有很少的500人左右。但到了特定时期2008年，这个数字就会增加到16000人以上，所以现在大约有10万名中国同胞加入了韩国国籍。

所以现在约有10万名中国同胞取得了韩国国籍，也有恢复国籍的情况。这包括获得美国或加拿大公民权的人想要重新获得韩国国籍的情况，或者给独立运动人士的后代恢复国籍的各种情况。通过那种情况获得韩国国籍。

还有获得韩国国籍的典型情况就是结婚移民归化，因为要和韩国人结婚，所以那个配偶就取得了韩国国籍。首先简易归化，然后再完全归化，那么就取得韩国国籍，成为韩国国民。但是这里结婚移民者大多数来自东南亚，但初期也有很多中国同胞，所以在中国同胞中也有结婚移民归化的。

所以取得韩国国籍的原因是，同胞们要么是具备一定的条件取得的，要么是作为结婚移民者取得的，要么是在同胞中特定的群体，要么独立运动人士的后代，恢复国籍等有各种形态。

所以最近同胞们取得国籍，所以最近同胞们取得国籍，外国人取得韩国国籍，可以说是各种形式的庆祝吧？正在准备仪式。所以为了纪念20万名入籍者，所以我们的入籍者，取得韩国国籍的人达到了20万人，其中中国的同胞有10万名左右，剩下的外国人有10万名左右。所以这是法务部传达成为大韩民国国民的证书的活动照片。拿着太极旗，和我们称为多多元文化庭的孩子们一起拍的照片。另外，还赋予萨哈林同胞国籍，萨哈林是日本帝国主义时期因强征等原因主要来自韩国的人去的地方。所以对着些人给国籍，但是因为要给谁国籍的问题，制定了国籍判定制度，给永久回国的人赋予国籍。所以这里有关于2021年的永久回国的萨哈林同胞采纳的话题。



最近又为了韩国国籍，给海外领养人国籍。因为各种原因，海外领养人可能是孤儿，也有未婚妈妈的情况。很多人领养到海外了。对韩国来说，这真是一段羞耻的历史，因为我们认为去海外的领养人是我们韩民族的后代，所以最近才给他们国籍。

所以我们说是居住在国内的同胞，就是来到国内的外国人中，所谓的同胞现在有多种分类。根据这个出入境统计，取得国籍的人，没有取得国籍，但有永久居住权的人，或者在外同胞签证，访问工作签证，或者和家人一起同居的签证，各种各样的签证，还有，无论是入籍还是国籍、独立运动，我们在满洲、沿海州或地区的独立运动不是很活跃过吗？也就是说，我们又对他们的后代给了国籍。

因为这种多种形式的移民政策，形成了复杂的滞留形态，根据其滞留形态，移民又开始了所具有的劳动。所以我们这样对中国同胞移居到韩国进行了统计，但是这个中国同胞移居到韩国并不是绝对独立的。正如我们首先了解到的，在全球范围内，作为超级趋势的移居是全球现象。特别是在东北亚，在亚洲中，中国的变化也令人惊讶。在此过程中，在中国的移动也很活跃，其对象地之一可以说是韩国，特别是根据中国同胞的同胞政策及移民政策，使中国同胞大量涌入。所以我们说是中国同胞移居到韩国，但这是外国人移居到韩国的21世纪现象的结合，有了韩国独特的在外同胞、同胞的观点反映到移民政策中，这样中国同胞、高丽人同胞进入韩国国内，形成了100万人的社会。在此过程中，中国同胞社会、高丽人同胞社会，对韩国社会产生了各种影响，在这种大的宏观变化联系到微观变化的过程中，我们可以更系统地审视了中国同胞对韩国社会的移居。



# 기타학습요소



## 〈퀴즈〉

## 1. 21세기 이주의 시대, 몇 명이나 이주하고 있을까요?

- ① 3명 중 1
- ② 5명 중 1
- ③ 7명 중 1
- ④ 10명 중 1
- ⑤ 20명 중 1

2. 아시아에서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가장 이주를 많이 하나요?

- ①남아시아
- ②동남아시아
- ③동북아시아
- ④중앙아시아
- ⑤태평양지역

3.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어디인가? 출산율을 제시해보시오.( )

4. 한국 내 외국인의 수는 대략 얼마인가? 어느 나라 출신이 가장 많은가? ( )

5. 한국 내 거주 200만 외국인 중 대략 재외동포의 숫자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가?

- ① 120만
- ② 100만
- ③ 80만
- ④ 60만
- ⑤ 40만

6. 다음 중 고려인 출신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인가?

- ①러시아
- ②우즈베키스탄
- ③카자흐스탄
- ④중국
- ⑤우크라이나



**<참고영상>**

- IOM 보고를 통해 세계 이민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1:11:40)  
▶ <https://youtu.be/npGQ28KIV7U?si=4zWtF22TdhELsDjx>
-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24:32)  
▶ [https://www.youtube.com/live/Pn4ZI\\_gjqo8?si=HCVstpERRHnZzxi0](https://www.youtube.com/live/Pn4ZI_gjqo8?si=HCVstpERRHnZzxi0)